

Contents

권두언

특집 I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특집 II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특집 III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인터뷰

알기 쉬운 지역발전정책

특집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04 활기찬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의 열쇠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06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김영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09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정성훈/강원대학교 교수

12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김희재/스트라베이스 총괄이사

1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조현훈/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사무관

지역발전 국내사례

지역발전 해외사례

지역발전과 사람

기고

통계로 본 지역경제

서평

포토에세이

독자광장

52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장영철/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주무관

54 도농교류협력사업

문대곤/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2팀장

56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조경수/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담당자

58 클린하우스, 청정제주의 디딤돌!

강경엽/제주시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담당

60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

양현봉/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2 EU의 지역고용협약제도(Territorial Employment Pact)

윤윤규/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65 미국 미시간주의 고용정책

김정홍/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68 섬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 섬여행학교

강신겸/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70 공동체박물관 계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일자리 창출

권 두 언

1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2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확대 개편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3 광역경제권별 2단계 선도산업 육성계획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활기찬 지역경제, 국가경쟁력의 열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스톡홀름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벗어난 지역에 활기로 가득찬 도시가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는 에릭슨, IBM 등 굴지의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1,100여개의 IT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2만4천여명의 IT고용인력과 6천여명의 대학생, 연구원들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구 9백만명의 작은 나라 스웨덴을 세계적인 IT강국으로 키워낸 심장부가 바로 이곳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이다.

국경이 사라진 무한경쟁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지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지역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였고,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역경쟁력의 원천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식 아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응한 2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지역 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선도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산업 정책이 인재양성보다는 장비, R&D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지역 R&D 인력의 수도권 유출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성장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인재 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선정되었던 광역선도산업에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을 더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채용조건부 R&D를 도입하는 등 지역 R&D와 고용간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기업과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앞둔 지역인재들에게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의 판소리는 고수와 소리꾼이 한 쌍이 되어 공연을 한다.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대학·시민들은 소리꾼, 중앙은 반주와 장단을 제공하는 고수와도 같다. 신명나는 판소리 한마당처럼 중앙과 지방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을 우수한 인재가 커가는 곳, 국내외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변모시켜 나갔으면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공 또한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촉진자(facilitator)이자 든든한 지지자(support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



추진배경과 광역경제권정책의 의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은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다.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은 것 자체는 그동안 국토계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광역권을 설정하여 국토개발에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접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산업적 연계 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의 선도 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시·도 단위 지역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 단일의 성장엔진에서 벗어나 국가 내에 복수의 성장엔진과 발전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성장전략이기도 하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의 추진현황과 특징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2개씩의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선도산업별로 3년내 매출 및 고용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개씩의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매출 5조 4,483억원, 수출 40억불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허출원은 663건, 특허등록은 131건, 투자유치는 11건에 4,5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량적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는 광역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연계를 활성화하여 선도산업의 광역적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산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의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소규모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광역선도사업은 지역의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업체의 유치 및 성장,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다.

광역선도사업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제조업 부문 수출이 우리나라 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역 선도사업은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국가적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커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크다.

한계와 향후 과제

광역경제권 정책은 그동안 지역의 경제·산업적 연계관계가 행정구역의 칸막이로 인해 과도하게 분절화된 것을 복원하고, 광역시·도 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핵심사업인 광역선도사업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기존의 선도산업이 광역경제권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선도기능이 강한 산업들이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최근 광역선도사업 2단계 사업계획에서 기존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통합하여 기존의 광역권별 2개씩에서 4개씩 확대 지정하는 것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의 지원사업은 프로젝트별 유망상품의 매출, 고용, 수출 등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지원사업을 통한 광역권 단위의 성과 파급과 확산효과를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지원받은 700여개 기업의 정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경제성장과 지역불균등의 공존

1960년 이후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2~3년을 주기로 성장과 쇠퇴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인 성장과 쇠퇴는 지속적인 성장 속에 나타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동생산성과 제조업의 연구개발 성과 등을 살펴보자. 노동생산성의 경우,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05년에는 선진국을 초월하여 2010년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R&D 지출액과 제조업 부가가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노동과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지난 50여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와 같은 통계 세계에서 나타난 한국 경제와 실생활에서 겪는 한국 경제에 심한 격차감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불균등 지표를 나타내는 통계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지표로 한국의 지역 간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타일지수 등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는 1965~1968년과 1991~1997년의 단기적인 지역 격차 완화 국면을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 간 불균등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부 유럽국가들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맞물린 경제적 황금기 동안 지역 간 격차를 급격하게 줄이면서 불균등을 완화시켰다¹⁾. 그러나 한국은 지난 50여년 동안



정성훈

▶ 196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변화



자료 : 한국은행에서 필자 재구성

▶ 한국의 제조업 R&D 지출액과 제조업 부가가치의 상관관계(1982~2009)



자료 : 한국은행에서 필자 재구성

국가경제와 지역 불균등이 함께 성장하여, 과장하자면 ‘경제성장 = 지역 불균등성 증가’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경제가 분배 없는 성장을 경험해 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장 방식으로 인해서 성장을 거듭할수록 지역 간·계층 간 위화감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되었다. 1998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한 공간적·사회적 불균등은 심화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산업으로 당해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지역전체의 성장 및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산업(basic industry)으로서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탈지역화된 제품을 생산, 제공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면서 지역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이하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표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1995년 지역대학에 구축된 장비활용을 통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 기반 조성사업(이하 RIC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연구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이하 RIS사업), 지역연구산업의 산업화 지원 연구소 설립을 위한 지자체연구소 설립지원사업(이하 RRI사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역특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내용

추진현황	'04	'05	'06	'07	'08	'09	'10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RIS)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RRI)지자체연구소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RRI)지자체연구소 (RIC)지역혁신센터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RRI)지자체연구소 (RIC)지역혁신센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육성정책 방향



그간의 성과 평가

2008년 정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선도산업 육성,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양성 및 30대 선도 SOC 사업¹⁾을 추진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사업('09 ~ '11, 이하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LED 등 신성장동력의 산업생태계가 비수도권 지역에 형성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12개 선도산업·20개 프로젝트에 703개 기업 등 1,10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년간 매출 8조 8천억원(수출 55억불 포함) 및 고용창출 17,600명을 목표로 총 7,62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광역경제권별로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사업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권역	광역경제권별 매출 및 수출 성과
충청권	디스플레이, 의약 바이오, 태양광 셀 등에서 2조 1,725억원의 매출, 14.4억불 수출
호남권	태양광 부품, 풍력, 광부품 소재 등에서 1조 2,733억원의 매출, 4.3억불 수출
동남권	그린카 핵심부품, 해양플랜트 등에서 1조 7,882억원의 매출, 7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지역주도 통합거버넌스 개편(안)



여수세계박람회와 지역발전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창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강동석 위원장과 여수세계박람회와 지역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지난 2월 29일 오후 공사장으로 둘러싸인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동석 위원장은 1965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02년 한국전력공사 사장, 2003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장악력과 추진력 그리고 현장주의를 바탕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3년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